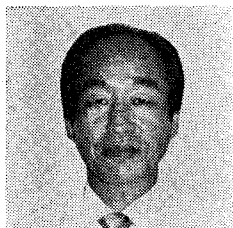


# 發明教室

##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 「아이디어」의 著者 姜信默 10年동안 全國누비며 發明 講義해



〈姜信默 회장〉

『사람은 누구나 發明人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민의 發明人化를 위해 직장(교사)까지 그만 두고 10년 동안이나 전국의 학교·직장·단체를 찾아 發明의 重要性과 技法을 講義해 온 새생각회 姜信默 회장(55)의 첫 마디.

우리나라 유일의 「아이디어」의 著者이기도 한 그도 한때는 發明人으로 5件的 特許權을 획득한바 있다.

姜회장이 지난 10年동안 講義를 해온 곳은 本會를 비롯하여 국립 과학관. 수출산업공단 북지관·자양새마을유아원·수원공전·대우국교·성남제일국고등 수없이 많다.

講義內容은 주로 나도 發明할 수 있다. 生活의 科學化·아이디어技法등 發明人이 되는 길을 案内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發明人이 되려면 우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뚜렷한 문제발견과 간단한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힘(지혜)을 길러야 한다고 強調했다.

또 發明人은 發明에만 몰두하라 고 당부하며, 완성된 發明은 企業人으로 하여금 企業化하도록 하는 것이 發明人和 企業人이 동시에 保護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姜회장은 또 앞으로의 發明은 個人보다는 세사람이 합동으로 하는 共同發明이 바람직하다며, 個人發明人의 경우 發明은 本業도 副業도 아닌 취미로 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發明은 우리 日常生活 주변의 가깝고 조그만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한가지에 몰두해야 成功할 수 있다고 強調했다.

姜회장은 또 企業의 경우는 全社員이 研究員(發明人)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때 會社側은 新製品·新技術 開發을 위해 提案制度를 最大限 活用해야 한다고 말했다.

姜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아직도 發明人 保護對策이 미흡하다며 當局은 發明人的 社會的 地位향상과 發明品 우선 구매정책등 다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發明教育은 유치원 과정부터 실시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웃 日本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치원 과정은 물론 유아용 장난감등이 지능의 발달을 돕는 즉, 發明教育을 염두에 두고 製作되고 있다고 말했다. <吳>

# 第30回 發明教室

8月 9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8月 9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30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번에도 200여명이 參席하…○
- …여 盛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는 새 생각회 姜信默 회장과 成昌物產…○
- …高昌岩 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강…○
- …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 인초 人形의 始祖 高昌岩

외길 19年……世界的 發明人으로 부상

한가지 品目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世界 最高인 314件의 特許를 획득한 「韓國版 에디슨」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成昌物產의 高昌岩사장 (55).

지난 第21回 發明의 날 紀念 全國發明獎勵大會에서 國務總理表彰을 受賞하기도한 高사장은 버려지는 짜투라기 인초로 인형을 만들어 20여개 先進國에 輸出, 年間 15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제 인초인형의 세계적 시조로 통하게 된 高사장이 인초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年前. 함경남도가 고향인 그는 6.25 때 월남해 단국대 상대와 日本 경영대를 졸업하고 10여년의 공직생활을 거쳐 68年 韓·日合作의 인초짜투라기 會社에 참여하면서 부티었다.

그리고 72년에는 독립을 위해 진주로 내려갔다. 그때 그는 이미 인초에 전생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있었다.

진주에 내려간 그는 새마을공장인 「고려농산」이란 회사를 設立, 인초로 꽃자리 방석등을 만들어 輸出을 했으나 별로 이렇다할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인초는 野生草인데 製品을 만들기 위해 인공재배를 시작했던 것. 또 짜투라기나 방석을 만들려면 길이가 최소한도 75cm 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많은 量의 인초가 쓸모없이 버려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는 무수히 버려지는 짧은 인초를 이용해 商品을 만들 수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다 얻은 결론이 인형이었다.

그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성격.

『만들었다 부은 인형이 몇만개는 될겁니다.』 74年 成昌物產을 設立하고 끈질긴 노력끝에 첫 作品을 만든것이 81年. 장고를 메고 춤추는 韓國고유의 무용인형이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기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시 머리를 짜낸끝에



〈高昌岩 사장〉

서구스타일의 날씬한 몸매에 드레스 차림을 한 인형을 착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인형을 이듬하여 「유니언 아씨」. 이런 모델의 인형이 나오자 외국바이어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줄을 이은 상담으로 82년부터 외국시장에 선을 보여 年間 150만달러를 벌어들이게 되었다.

高昌岩사장. 그는 이제 제네바展 등 國內外 發明品展示會에서도 여러차례 受賞, 이제 世界的 發明人이 되었다. <㉞>